

**매경 베트남 포럼  
중소기업 대표단 파견 결과보고**

2026. 6

**KBIZ** 중소기업중앙회

# 1

## 출장 개요

### □ 기본개요

- 출장목적 : 매경 베트남 포럼 참석 및 현지 정부·기업과의 협력 강화
- 출장기간 : 5.19(화) ~ 5.22(금)
- 출 장 지 : 베트남 호찌민
- 참 가 자 : 중앙회장, 권혁홍·배조웅 수석부회장, 한병준·강동한·김석원 부회장, 김병진 전북지역회장, 김영석·장태순 이사, 이영남 노바스이지 회장  
\* (실무) 김철우 실장, 조경욱 대리

### □ 주요일정

일자	주요 일정
5.19 (화)	[출국] 인천 - 호찌민 09:05 - 12:35 (5h30m, KE471) [출국] 인천 - 호찌민 18:50 - 22:10 (5h20m, KE475)
5.20 (수)	○ (09:00) 매경 베트남 포럼 ○ (11:45) 한-베트남 경제인 오찬
5.21 (목)	[귀국] 호찌민 - 인천 13:55 - 21:25 (5h30m, KE472)
5.22 (금)	[귀국] 호찌민 - 인천 13:55 - 21:25 (5h30m, KE472)

## 2

## 주요 내용

### □ D-1 만찬

- 일 시 : 5.19(화) 18:00 ~ 19:30
- 장 소 : JW메리어트 사이공 푸꾸옥홀
- 참 석 자 : 양국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약 120여 명
  - 본 회 : 권혁홍 수석부회장, 강동한 부회장, 김병진 전북지역회장, 이영남 노바스이지 회장
- 프로그램

시간	주요내용	비고
18:00-18:01	오프닝	-
18:01-18:10	기념촬영	-
18:10-18:12	환영사	○ 장대환 매경미디어 회장
18:12-18:14	축사	○ 정정태 호찌민 총영사
18:14-18:17	축사	○ 손경식 경총 회장
18:17-18:20	축사	○ 권혁홍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18:20-18:22	건배사	○ 김석기 국회 외통위원장 ○ 이춘석 국회의원(무소속)
18:22-19:30	만찬	-
19:30	클로징	○ 폐회 및 만찬 종료

### ○ 현장사진



## □ 매경 베트남 포럼

- 일시/장소 : 5. 20(수) 08:40 ~ 13:10 / JW메리어트 사이공 그랜드볼룸(2F)
- 주 최 : 매경미디어, 코트라,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 참 석 자 : 양국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300여 명
  - (한 국) 중앙회장, 김석기 국회 외통위원장, 이춘석 국회의원, 손경식 경총 회장, 강경성 코트라 사장, 정정태 호치민 총영사 등
  - (베트남) 호시흥 베트남상의 회장 등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08:40-09:00	○ VIP 리셉션	
09:00-09:30	○ 개회	
	○ 기념촬영	
	○ 개 회 사 : 장대환 매경미디어 회장	
	○ 축 사 : 응우옌 쑹 빈 호찌민시 인민위 부위원장	
	○ 환 영 사 : 강경성 코트라 사장	
	○ 축 사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 주요인사 소개	사회자
	○ 기조연설 : 호시흥 베트남상의(VCCI) 회장	
09:30~09:45	○ 커피 브레이크	
09:45~10:30	○ 세션 I : 베트남 투자환경	
10:30~11:45	○ 세션 II : K-비즈니스 성공 사례	
11:45~13:10	○ 한-베트남 경제인 오찬	

- 현장사진



## □ 중소기업 애로사항 인터뷰

- 일시/장소 : 5. 20(수) 10:30 / JW메리어트 사이공 HONG ONG 룸
- 주요내용 : 베트남 진출 한국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
- 현장사진



- 보도내역

매일경제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A14면 종합

## “韓기업인 대상 비자발급 개선 시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인터뷰**  
베트남서 불합리 관행 지적  
잡은 세무조사 진행도 문제  
진출 中企 애로 파악 나설 것

“베트남은 외국 기업에 대한 비자 발급과 세무 조사가 까다롭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지난 20일 베트남 호찌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매경 글로벌포럼’ 직후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베트남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외국 기업 대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 한국 중소기업들을 대



상으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김 회장이 이 같이 발언한 데에는 배경이 있다. 국내 대기업과 제조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동반 진출에 이어 최근 K푸드·K뷰티 열풍을 타고 소비재 기업들의 진출 또한 활발해지고 있지만 현지의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베트남 세무당국은 여전히 외국 기업에 수년 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다수 인력을 사업장에 파견해 장기간 세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잡은 세무 조

사에 따른 행정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호찌민 세무당국이 실시한 특별조사 대상에도 한국 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 문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우리 중소기업 주재원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노동허가와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요구하는 서류가 까다롭고 처리 기간도 길어 현지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을 따라 베트남에 동반 진출했다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협력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시회 등을 통해 현지 기업이나 인근 국가의 신규 바이어 발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베트남 호찌민 정옥 산업부장(팀장)·정승환·이동인·안병준·이운식·이진한·한재범·이수민·사진 한주형 기자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요즘 호소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고,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 비자나 세무 관련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
  -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노동허가와 비자(거주증)을 받아야 되는데, 구비서류도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려 많은 진출기업이 불편을 호소
  - 최근 세수확보 등을 위해 외국기업 대상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잦은 세무조사에 따른 서류부담, 경영 불확실성 등이 가중되는 실정
    - 호찌민 세무국, 300개 특별 조사대상에 CJ, 포스코 등 한국기업 다수포함(26.4)
- 기업은행 법인화, '24년 백두포럼 등 중앙회가 오랜 기간 베트남 정부에 건의했고. 올해 10월에 현지법인 출범예정
  - 현지 진출 中企 금융애로 개선 및 필요한 지원 기대
- 대표 경제단체로서 중장기적인 애로도 살펴볼 계획
  - 베트남 경제성장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문제가 대표적이지만, 중국기업과의 경쟁, 베트남 로컬기업의 성장 등도 우리 중소기업들의 도전과제
    - 최근 진출기업의 20.7%가 철수 또는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연구기관의 조사결과가 발표될 만큼, 관련 애로가 구체화 되는 상황
      - 산업연구원(25.12),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 상반기 중에 현장 조사를 진행해 보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해 볼 예정
    - 베트남사무소, 하노이 북부지역 중소기업 대상 심층인터뷰(FGI) 진행예정(7월)

## 한국 대기업과 함께 베트남에 동반 진출한 협력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베트남 진출 대기업은 ‘한국기업인 동시에 베트남기업’ → 한국에서의 협력관계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
  - 대기업의 △생산품목이 달라졌거나, △인건비 급등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동반진출 이유를 잃어버린 중소기업들이 대표적
  - △전시회 등을 통해 로컬기업 또는 인근 국가에 새로운 바이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한국의 스마트 공장처럼 대기업이 현지 동반진출 협력기업의 생산성 제고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시기
- 사업재편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출구전략’ 도 필요
  - 과거,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이 제대로 된 청산절차를 거치지 못해 속칭 ‘야반도주’를 하거나 불합리하게 지분을 정리당한 경험 有
  - 베트남도 외국기업 대상 청산절차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분 매각이나 해외이전 등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필요
    - 청산 시, 행정절차와 세무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출국이 막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
  - 주요내용 : 베트남 진출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

## □ K-소비재 쇼케이스 및 라이브커머스 참관

- 일시/장소 : 5. 20(수) 13:30 ~ 13:50 / JW메리어트 사이공 2층
- 참석자 : 중앙회장, 장대환 매경미디어 회장, 강경성 코트라 사장,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장 등
- 주요내용 : K-푸드, K-뷰티 등 소비재 쇼케이스 및 라이브커머스 참관

구분		세부내용
①쇼케이스	K-Food	○ 내수/초보 식품 기업 16개사 및 CI푸드 등 진출기업 협업 전시관 운영 ○ 간편식(HMR), 건강기능식품, 스낵류 등 인기 K-푸드 큐레이션
	K-Beauty	○ 비건 화장품, 색조 등 국내 유망 뷰티 내수/초보 기업 25개사 전시·홍보 ○ 현지 트렌드에 맞춘 샘플 테스트 및 LG생활건강 등 진출기업 유통제품 홍보
	K-Retail	○ 유통플랫폼진출지원사업 참가기업 동반진출 중소기업 제품 전시 ○ 유통 플랫폼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브랜드 홍보 (롯데홈쇼핑, 청담글로벌)
②라이브커머스		○ 호치민 코참이커머스협회 협력,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한 온라인 판촉 및 홍보 ○ BBIA, Hince 등 현지 진출성공 브랜드 및 수출초보기업 등 8개사 병행 판촉

### ○ 현장사진



매일경제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A01면 종합



**한·베 정상외교 이후 민간 비즈니스 외교** 20일(현지시간) 한·베트남 수교 34주년을 맞아 베트남 경제 수도 호찌민에서 열린 제34회 매경 글로벌포럼에서 장대한 매경미디어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장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장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호시흥 베트남상공회의소 회장, 돈람 비나캐피탈 회장을 비롯해 한국과 베트남 정·재계 인사 300여 명이 모였다.

매일경제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A04면 종합

# 1억명 거대시장·AI 인프라 수요...“베트남은韓기업에 기회”

## 韓재계 인사 호찌민 집결

매일경제가 20일 베트남 호찌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34회 매경 글로벌포럼'은 한국과 베트남 수교 34주년을 맞아 양국 기업인들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참석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진출 요인으로 △미국·중국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에 대한 대응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수요 △1억명이 넘는 젊은 인구를 기반으로 한 거대 소비 시장 등을 꼽았다.

실제 베트남은 한류를 타고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했던 2000년대만 해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98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745달러까지 성장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목적이 봉제·조립 중심의 생산기지 확보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반도체와 전자 산업을 포함한 첨단 제조업 핵심 생산거점으로 위상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포럼 연단에 선 장영석 현대모터스 베트남지사장은 베트남의 강력한 인프라 수요를 강조했다. 현재 현대모터스는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남고속철도'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북부 수도 하노이와



한국-베트남 수교 34주년을 맞아 '매경 글로벌포럼'이 20일 베트남 호찌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장대한 매경미디어 회장, 호시흥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회장을 비롯해 한국과 베트남 정·재계 인사 300여 명이 모였다. 앞줄 왼쪽 다섯째부터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장 회장, 호시흥 회장, 용오민하이 T그룹 회장, 정정태 호에민 총장사.

남부 경제 중심지 호찌민을 연결하는 총연장 1541km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최고 시속 350km로 설계된 항공 시 현재 30시간 이상 걸리는 이동시간을 5~6시간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모터스는 올해 시속 370km급 고속차량 핵심 기술 개발도 완료할 계획이다. 현대모터스는 호찌민 매토로 2호선 철도차량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 이 노선은 총연장 64km 규모로 지하·고가 구간을 포함한 도시철도망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역시 최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찾는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이 중국 공급망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특정 국가에 집중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소재 기업 OCI도 지난해 베트남 소재 태양광 웨이퍼 기업 엘리트솔라파워웨이퍼의 공장 지분 65%를 인수했다. OCI의 베트남 자회사 내오실리콘의 서영원 대표는 "현재 중국이 전 세계 신규 태양광 패널 생산능력에

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OCI는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웨이퍼와 실리콘 기술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AD/CVD),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중국산 태양광 제품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베트남은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OCI 계열사 내오실리콘은 올해 본격 양산 체제에 들어가 미국 수출용 태양광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 OCI는 말레이시아 사리야 공장에서 생산한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베트남 웨이퍼 공장으로 보내 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의 공급망을 구축했다.

1억2000만명의 인구나 33.4세 수준의 낮은 중위연령을 보유한 베트남은 소비 시장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국내 유통 업체 역시 현지 사업 확대에 속

한국기업에 위상 달라진 베트남 첨단산업 핵심 거점 급부상 현대모터, 고속철 수주 도전 OCI, 美수출용 웨이퍼 생산 롯데마트, K푸드 공략 확대

도를 내고 있다. 유통 분야에선 롯데마트가 2008년 호찌민 남사이공점 개점을 시작으로 현재 호찌민, 하노이, 다낭, 나짱 등 베트남 전역에서 1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차우철 롯데마트·슈퍼 대표는 "베트남 소비자들은 소득수준 향상과 젊은 층 중심의 소비 확대에 따라 단순 생활품 구매를 넘어 식품 신선도와 프리미엄 상품, 매장 내 식사·여가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특히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K푸드·K뷰티에 대한 선호가 계속 확대되

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K푸드·K뷰티·자채브랜드(PB) 상품과 프리미엄 신선식품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즉석떡볶이 특화 매장 '오리하다 키친'을 통해 떡볶이·김밥 등 K푸드 메뉴를 확대했고, 현지 소비 문화에 맞춰 매장 내 취식 공간도 늘렸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은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등 미래 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안보와 공공형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이제 단순 생산파트너를 넘어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 산업을 함께 개척하는 동행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대한 매경미디어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호시흥 베트남상공회의소 회장 등 한국과 베트남의 주요 정·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